

농사 짓고 전기 만들고… 농민·기업 상생모델 세운다

광주시, 전국 첫 'RE100 결합'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
민관협 출범…지속가능 농업·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 RE100'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지 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아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농업 융합 모델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기업의 친환경 전력 조달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연다.

광주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농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민 햇빛연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근혜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업 RE100 연계"다.

광산구 본량동 일원 약 20만㎡ 농지에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목표를 달성하고, 농민은 토지를 유지하면서도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받는다. 농민과 기업이 동시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사업은 '농민 주도형'으로 설계됐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 농민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에는 주민 대표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실국장, 광주시와 광산구, 시·구의회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식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영농법인 설립 지원 등 정부 정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행정 지원을 실시하는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근혜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사업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득룡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 전기생산을 넘어 농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미래로 바꾸

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고 농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관협의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의 복잡

한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농민 중심의 모범적 영농형태양광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사업은 농민에게

는 햇빛연금을, 기업에게는 RE100 실현을 가능케 하는 일거양득 사업이다"며 "농민 주도의 민관협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성공 모델이 되어 농업과 에너지가 상생하는 전국적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헬스케어 선도도시 도약, 제도적 방안 마련”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테크노파크서 주요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는 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및 의료로봇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혁신의 중심 기관으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AI융합센터, 에너지산업센터,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 등을 운영하며 광주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는 전국 유일의 헬스케어 및 로봇 융합 실증 인프라로 의료기기와 재활로봇의 성능 검

증, 제품 실증, 인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AI,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UAM 등 미래 산업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광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의료로봇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성장 견인에 주력하며, 광주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박우진 광주테크노파크 매니저, 김용화 전남민군산

업협회 사무총장, 홍성호 호그리너(수소 드론) 대표 등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기술 상용화 전략과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방문한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현장에서는 헬스케어와 의료로봇과 관련한 주요 시설을 살피고, 연구 과정과 기술 적용 사례를 점검하며 현장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인재 양성 간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헬스케어 산

업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 동력이다"며 "광주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의료로봇과 헬스케어 실증 연구는 의료 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AI, 센서, 로봇 기술이 융합된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며 "광주가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위원회는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산업 발전방안을 폭넓게 청취하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광주시장 도전

진보당 후보로 출사표…“30년 행정경험으로 현안 해결”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5일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진보당·사진)를 선언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전성기, 상상 이상의 광주를 함께 만들자"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본부장은 "광주는 기존의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며 "30년의 행정 경험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통해 공공성 이념, 재정 위기, 행정 통합, AI 국가시범도시, 소각장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년 행정과 민주노총본부장으로서의 역량으로 호남의 전성기, 광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광주시청 공직자 동료들과 손을 잡고 색다른 정치, 색다른 행정의 효능감을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광주의 노동운동,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이끌었던 이종욱 본부장의 입당을 환영한다"며 "광주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결심을 지지하며 빠르게 제반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광주시장 후보로 선보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는 고 오지호 화백의 증손녀 박지윤씨가 지지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불교 미술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씨는 "길을 여는 민주노총의 광주본부장이 이종욱, 태평양의 50m 파도를 뚫고 길을 열었던 항해사 이종욱이 광주를 청년을 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믿는다"며 말했다.

한편 이종욱 본부장은 1995년 광산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을 거쳐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장을 연임 중이다. 공무원 임용 전 대형 선박의 항해사로 일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 8일 출범
‘자치분권 강화’ 주민 연대 시작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동행 아카데미 2층 강연장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동행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니어·청년 일자리 지원, 주민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번 아카데미 개소식에는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승환 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그 연대의 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를 출범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동행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증진,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주민자치분권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누구나 동행 아카데미'가 확대 개편된 단체다.

아카데미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시니어·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자료들을 발굴·제공했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 북구, 말레이시아 1120만달러 수출 계약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유망 바이어 발굴·기업 매칭
2212만 달러 상담 실적 ‘쾌거’

광주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말레이시아에서 총 1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2212만 달러 상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와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둔 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2023년부터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미용·뷰티, 식품, 의료기기 등 생활소비재 분야 유망 기업 9개 사가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파견됐다.

지난 3일 현지에서는 유망 바이어와 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북구는 참여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망 바이어 발굴 및 기업 매칭, 현지 시장조사 등 실질적인 수출 기회 마련에 공을 들였다.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은 자동심장



광주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말레이시아에서 총 1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2212만 달러 상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총격기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나눔테크로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즉석감지카드를 제조하는 위로푸드도 총 20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에 서명했다. 미용·뷰티 분야에서는 LED 피부미용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웰스가 총 15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또 위로푸드, 부각마을, 담백원, 소프트웰스, 파인트코리아, 에스에이치엔코 등 현지 시장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와 협력벤처 Orbit Global Ventures의 계약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Lazada, Shopee, TikTok Shop)에 입점하기로 했다.

수출상담회 외에도 현지 유력 유통기업

인 KMT Group과 Parkson Group의 물류창고와 백화점에 방문해 현지 시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구는 이번 시장개척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라이브커머스 판촉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 확장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출 판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출판기념회’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핵심 성과·청사진 제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전 광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성과 등을 풀어낸 책 '김동찬의 출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김동찬의 출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집필 배경과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저자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된다.

김 상임부회장은 이 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김 상임부회장은 광주 북구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풀뿌리 정



지인이다. 청년이 희망을 품고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주도했고,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합력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중재자 역할과 성공적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에 산파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 교통 지도를 바꿀 기틀을 마련했다.

김동찬 상임부회장은 "광주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려 있다"며 "지난 성과들을 다짐들 삼아 지역의 더 큰 미래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